

# 21세기의 문법

김광해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1. 도입 - '문법'의 개념

이 글은 우리나라의 문법 교육이 21세기에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에 변화무쌍한 언어를 다루는 국어 교육의 앞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인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논의의 가치도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인 문법 교육에서 시대와 관계없이 불변(不變)이며 중핵적인 항목들을 얼마나 잘 포착해 내느냐 여부에 따라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우리말과 우리말을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하는 점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21세기에 우리말이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 논의는 당연히 우리말인 '국어'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꾸준히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만약 21세기 어느 시점에선가 국어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허무한 것이고 따라서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전개될 국어 문법 교육의 양상에 대한 전망이라는 목표에 원만히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 자주 사용하게 될 '문법 교육'이

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국어학, 또는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용어 자체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법 교육'이라는 용어를 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하기 시작한 연륜도 그리 길지는 않다. 지난 세기의 경우, 최소한 해방 이후 50년 내내 문법 교육은 국어 교육 속에서 줄곧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는데, 교과 이름으로는 주로 '문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영역 이름으로는 '언어지식', '국어지식'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과목이 과연 교육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자국민을 위한 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담당할 기능과 역할, 내용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심각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김광해, 1995; 권재일, 1995; 이성영, 1995a; 최영환, 1995), 김광해(1997a)는 문법 교육이 좀 더 교육적 의의를 가지기 위하여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문제 중의 하나는 전통적으로 전개되어 온 학교 문법 교육, 즉 통사론 중심의 문법 교육이 자국민을 위한 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내내 전개되어 왔던 학교 문법 교육은 중세 유럽에서 라틴어 교육을 할 때 사용하던 이른바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이 학교 문법은 규범 문법(prescriptive grammar)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면서 실용 측면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식의 문법 교육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는 교육적 가치를 의심받아 왔던 것이며, 서구에서는 적어도 1930년대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김광해, 1992). 이런 반성의 결과로 제시된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문법 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국어 지식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명칭만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종래 통사론 중심의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적인 가치가 좀 더 확보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도입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 대안은 폭넓은 호응을 얻어 국어 교육학계에서는 물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문서인 교육과정에도 수용되었다. 2000년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 국어 지식 교육은 ‘국어 알기’라는 인지적 영역과 ‘국어 가꾸기’라는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 문법 교육은 일단 이런 식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셈이다.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이 이렇게 원래 ‘문법’이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멀어지는 쪽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용어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째 이유는 이 용어가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온 교과 명칭이라서 쉽게 버리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현대적 의미의 ‘국어 지식 교육’에 딱 들어맞는 용어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국어 교육에서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문법’이라는 용어는 현재 이 말이 원래 가리킬 수 있는 내용보다 한결 확대된 외연을 가지는 것이다. 이 교과는 ‘국어’는 물론 인간을 특징짓는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언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태도 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두루 포괄하는 교과로 이해되고 있다.

## 2. 발전된 문법 교육의 모습

### 2.1. 전제 - 국어의 미래

‘국어 문법 교육’, 즉 ‘국어 지식 교육’은 우리말, 국어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이 점에 생각이 미치면, 21세기에 전개될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도입 부분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21세기는커녕 바로 며칠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에 대해서조차도 예측하기가 힘든 실정인데, 이런 와중에서 우리말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 매체의 급속한 보급으로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서 군소(群小) 언어들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문법 교육의 앞날을 생각하려면 우선 이런 상황들을 고루 감안하여 국

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21 세기가 다 가기도 전에 우리말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이 자리에서 국어 지식 교육의 앞날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낱 부질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미래에도 국어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의심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야만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어는 발전되어야 한다. 국어 지식 교육도 이를 위해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는 명제들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에도 국어는 존재한다.”는 명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이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예측과 낙관적인 예측이 모두 가능하지만, 우리는 낙관적인 예측 쪽을 선택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말(국어, 한국어)은 최소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상처럼 단순한 ‘도구’ 같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에 영어 공용어화 주장 같은 것이 불거진 일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거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가공(架空, fiction)의 주장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의 국어는 우리 민족의 모어(母語)인데, 우리의 국어는 아무 언어 중에서도 하나를 골라 도구로 삼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사용되고 발전되어 온 말로서 우리 민족에게는 선험적(先驗的)인 성격을 가지는 존재이다. 우리말과 우리 민족은 분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말, 곧 국어는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 형성해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 혼, 세계관 같은 것들이 깃들여 있다. 모국어를 두고 민족 정신, 민족혼, 국민성이 구현되는 자체라고 말한다거나, 민족어가 바로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인 국어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시호(2000)에서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 언어 전쟁이 그치지 않아 왔으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다양한 세계의 민족어는 좀처럼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인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

론인 사이에 끈질긴 언어 갈등이 존속되고 있어서 벨기에는 ‘언어전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나라’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유고 분쟁의 근저에도 언어 갈등이 깔려 있는데, 코소보 사태의 와중에서 모국어인 코소보, 알바니아어를 지키려다가 50여 명의 코소보 교사들이 처형된 일도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및 리투아니아 등은 모두 러시아어를 버리고 자기네 모국어를 국가 공용어로 지정했다. 바스크어를 내세우며 끊임없이 분리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바스크인들도 있으며, 히브리어 부활운동을 전개해 이디시어파를 누르고 독립 후 이스라엘의 국가 공용어로 히브리어를 내세운 시오니스트들의 예도 있다. 시오니스트들은 “언어는 곧 민족이요, 민족은 곧 언어”라는 명제를 실현, 히브리어를 부활시킴으로써 유대 민족의 존재를 만방에 알렸다. 영어의 확산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이 자국어를 지키려는 운동도 이와 다른 것이 아니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말을 말살하고 일어를 공용어로 내세운 것도 민족과 언어 문제가 두 개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예이다.

둘째, 우리말 자체가 우리의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이는 곧 세계의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라는 점 때문이다. “다양하지 않은 것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거니와 오늘날의 세계적 공통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다언어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구가 UNESCO인데, 스톡홀름 문화정책회의에서 페데리코 마요르 사무총장은 1982년 멕시코에서 채택한 문화정책의 원칙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세계화가 문화적 단일성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황폐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문명화한 세계”라고 선언한 바가 있기도 하다. (정시호, 2000)

여기에 한 가지 근거를 더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래에 우리말이 존속할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는 일은 이미 우문(愚問)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말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오히려 우리말을 세계 속에 알리려 많이, 효율적으로 보급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이

런 사실들로 보아 최소한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미래에도 국어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도 국어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전술했던 “국어는 발전해야 한다.”라든가, “국어 지식 교육은 발전해야 한다.”는 명제들도 나란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2.2. 교육의 내용

앞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한다면 ‘문법 교육’, 곧 ‘국어 지식 교육’은 ‘국어, 우리말’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영역의 교육에서 다룰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미래의 우리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되, 교육적 가치가 확보된 내용들이 어떤 것일지 생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1세기의 국어정책에 대하여 전망한 김광해(1997b)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종합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내용이다. 바꿔 말하면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말이 존재하는 한 국어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불변(不變)이며, 중핵적 항목이라고 판단한 항목이다. 21세기의 문법 교육에 대해서도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예측해 보면 된다.

### 2.2.1. 우리말 알기

국어가 존재하는 한 ‘우리말 알기’는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이다. ‘우리말 알기’는 충실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말을 다양하고 폭넓게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는 곧 언어로서의 국어를 과학적으로 충실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지식들이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필수적인 기반 지식이 된다. 여기에는 ‘국어의 발전’이라는 좀 더 미래적이며, 생산적인 전망과 결부되는 사항들도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에는 국어 자료의 전자적 처리, 자동 번역, 음성 직접 번역, 인간의 이해를 위한 언어 연구 등

을 위하여 정보화 문제가 교육의 중핵을 이룰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이해하기 위한 국어 연구라든가, 은유나 시 같은 문학적 표현, 창조적 표현의 생산 과정과 해석, 나아가 이 방면의 전문가 양성을 염두에 둔 국어 지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국어 지식 교육의 '우리말 알기'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예상된다.

## □ 우리말 알기 (1)

### (가) 언어의 본질

언어의 기호적 특성 / 언어의 규칙성과 체계성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관계 / 언어의 전자적 처리 / 미디어와 언어

### (나) 언어와 인간

언어와 사고의 관계 / 언어와 사회의 관계 / 개인방언(idiolect) / 지역적인 방언, 사회적인 방언 / 국어 순화 / 방언과 표준어의 조화 / 언어와 문화의 관계 / 인간의 언어와 컴퓨터 언어 / 인공언어 / 언어의 이해와 표현 과정 / 인간의 두뇌와 언어

### (다) 국어의 특질과 변천

국어의 특질 / 민족어로서의 국어의 성격 / 우리말과 민족 문화의 상관성 / 우리말 고유의 문법 규칙 / 문화적 동질감과 민족적 유대감 / 현대 국어와 그 이전 국어의 차이점(문자 및 표기, 음운, 형태, 조어법, 어휘, 통사) / 다른 나라말과 우리말의 자동 번역

## □ 우리말 알기 (2)

### (가) 음운의 체계와 변동

음성과 음운의 구별 / 음절 / 모음의 분류 / 자음의 분류 / 음장 / 국어의 음운 체계 / 자음 체계 / 모음 체계 / 음운의 교체 / 자음의 중화(中和) 현상 / 음운 탈락 / 음운 축약 / 사잇소리 현상 / 음운의 전자적 처리 / 컴퓨터에 의한 음성 인식과 표현

### (나) 단어의 갈래와 형성

품사분류의 기준 / 품사 / 단일어 / 복합어 / 합성어 / 파생어 / 한  
자어의 형성 / 머릿속 사전 / 전자 사전

(다) 문장의 구성 요소와 짜임새

문장 성분의 재료 / 주성분 / 부속 성분 / 독립 성분 / 사동과 피동  
/ 시간 표현 / 높임과 낮춤 / 문장의 종결 / 긍정과 부정 / 문장 속의  
문장 / 이어진 문장 / 홑문장 / 겹문장 / 컴퓨터에 의한 문장 처리

(라) 단어의 의미

의미의 종류 / 개념적 의미 / 내포적 의미 / 사회적 의미 / 정서적  
의미 / 반사적 의미 / 주제적 의미 / 단어간의 의미 관계 /유의 / 반  
의 / 하의 관계 /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 / 의미 변화의 종류 / 의미  
의 확대 / 의미의 축소 / 의미의 이동 / 의미 변화의 원인 / 컴퓨터  
에 의한 의미 처리

(마) 문장과 이야기

이야기(발화, discourse) / 담화 문법(discourse grammar) / 텍  
스트 문법(text grammar) / 성분의 생략 / 보조사의 의미와 용법 /  
보조 동사의 의미와 용법 / 지시어(이, 그, 저)의 문법성 / 물음과 대  
답의 문법성 / 대우법 / 표현 형식과 내용의 관계 / 이야기의 구조 /  
컴퓨터에 의한 이야기 처리

(바) 한글

세계의 문자와 한글 /한글 창제의 과정 /한글 창제의 신비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장단점 /한글과 컴퓨터 /한  
글의 미래 /한글 세계화의 가능성 /한글을 가꾼 선구자

2.2.2. 우리말 가꾸기

‘국어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미래의 문법 교육, 곧 국어 지식 교육의 내  
용을 구상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은 우리말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관한 항목이다. 한국어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초  
점을 맞추면서, 충실한 한국어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일, 즉 국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일은 앞으로도 변함 없이 국어 지식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국어를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곧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어 문화는 물론 세계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세련되고 품위 있는 한국어 문장(tex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우리말 가꾸기의 중요한 내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말 가꾸기'는 이상과 같은 커다란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하위 영역들이 상정될 수 있다. 첫째는 국어 사용과 관련된 태도 및 습관 문제를 꾸준히 다룸으로써 문화유산으로서의 국어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방향이다. 이 속에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정치적 문제이며, 잠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통일을 전후하여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심리적인 간격을 좁혀가기 위한 과제도 포함된다. 둘째는 정확한 문장, 가능하다면 품위 있는 국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며, 셋째는 앞의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표준어, 맞춤법 같은 규범 문제를 다루는 일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일부는 정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른 일부는 사회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우리말 가꾸기

### (가) 국어 사용의 태도 및 습관

정확한 표현 / 효과적인 표현 / 국어 순화 / 고유어 / 외래어 / 한자어 / 언어와 문화 / 언어 표현의 형식과 내용 간의 관계 /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 남북한 언어의 통일 방안

### (나) 단어와 문장의 올바른 구사

정확한 단어 선택 / 단어의 바른 용법 / 자연스런 표현 / 구체적인 표현 / 조사와 어미의 바른 사용 / 문장 요소들 사이의 호응 관계 / 문법에 맞는 문장 / 비문법적인 문장 고치기 / 컴퓨터를 사용한 문장

## 다듬기

## (다) 표준어와 맞춤법

표준어 / 표준 발음법 / 표준어의 제정의 필요성 / 방언의 가치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 컴퓨터와 언어 규범

## 2.3. 교수 학습 방법

한두 해 뒤의 일도 예상하기 어려운 마당에 21세기의 국어 교육, 그것도 문법 교육의 방법 문제를 예상하고 언급한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이다. 당장 내년에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이 등장할 것인지, 교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시 여기서도 세상의 변화와 관계없이 끝끝내 사라지지 않을 절대 가치를 가지는 항목을 찾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 굳이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창의적 사고'라는 항목일 것이다. 우리에게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하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생각을 하지 말자'는 생각만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탄생한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이런 추론 방식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21세기의 문법 교육, 곧 국어 지식 교육에서는 20세기에 줄곧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지양될 것이다. 그 대신 지적 호기심을 고취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의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의 도입을 통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우리말 알기'를 실천할 때에도 단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훈련을 통해서 사고력 교육을 하는 탐구 학습, 발견 학습과 같은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들이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도구로 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문학으로서의 언어학 혹은 국어학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논자에 따라서 서로 대

립하는 것도 많다. 이 분야의 학문적 특성상 이런 점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백하다. 그것은 국어 지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신장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력, 통찰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잡는 일이다.

발전된 학습 방법으로서 발견 학습, 또는 탐구 학습 등과 같은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을 제창한 사람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습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 주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평소에 국어 문장의 문제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정확한 문장, 논리적인 문장, 규범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접적인 경험 과정을 통해서 획득된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이어서 그 학생이 장차 어떤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게 되든지 간에 국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전개될 교수, 학습 방법의 양상을 짐작해 보려면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지식', 또는 '문법' 과목에서 수용한 항목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참고가 된다. 그 특징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문법' 과목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 및 주입이 아니라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 내는 탐구 과정을 중시하되, 언어 현상에 관한 흥미와 관심이 증진되도록 지도한다.
- 문법 분야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언어로서의 국어를 잘 이해하게 하여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인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국어에 대한 지식은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민족어로서의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발전 문제에 대하여 생

각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3. 맺으며

앞으로 30년 이내에 30개 정도의 언어만 남고 나머지 대부분의 언어들은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지만, 우리 민족이 쓰는 말, 국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21세기에 펼쳐질 문법 교육의 문제를 전망하고자 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어 교육'이니 '문법 교육', '국어 지식 교육'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될 것임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낙관적이다. 그 근거들은 본문에 제시하였거니와, 한국어의 미래는 지상에서 사라질 것을 우려해야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지금보다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언어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다듬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잘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 국어 교육에서 '국어 지식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논리 위에서 있다.

21세기에 달라질 상황을 상상해 볼 때, 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크게 지적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 남아 있다. 그것은 국어 지식 교육이 미래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어문 관련 분야의 발전은 인문학의 발전이며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분야는 또한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긴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 예로 컴퓨터와 언어 연구의 결합은 필연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컴퓨터 관련 산업이 앞으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거니와, 컴퓨터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자연 언어 처리 기술을 연구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정보 처리 및 축적 기술, 인공 지능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은 자연 언어로 처리 기술과 필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언어 연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둔 언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하는 일은 일

종의 국가적 의무이다. 국어 지식 교육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국어 지식 교육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인 관점에서 전망해 보았다. '21세기'라고 제목은 달았지만 아마도 그 긴 기간 중에서 극히 짧은 미래에 대한 전망일 것임은 물론, 그나마 전혀 엉뚱한 진단은 아닐지 두렵다. 이 글의 논지는 결국 앞으로도 국어는 계속 존재할 것이므로 이를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지 속에는 묘한 순환론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대로 구상하고 실천한다면 결국 국어의 장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가 '국어 문법 교육', 즉 '국어 지식 교육'은 우리말, 국어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논의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논의가 앞으로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법 교육, 국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용의주도하게 구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1988). 「학교 문법의 전통과 통일화 문제」. 서울대 『선청어문』 16 · 17.
- 곽재용(1995). 「국민학교 국어과 언어 영역의 지도 방안」. 『국어교육』 87 · 88.
- 구현정(2000). 「21세기 국어학의 전망과 새로운 모색」. -의미 · 화용 분야-.
- 한말연구학회(2000).
- 국어연구소(1984). 「학교 문법 교과서의 변천 과정」. 『국어생활』 창간호.
-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권재일(2000). 「국어정보화와 국어학 연구」. 한말연구학회.
-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선청어문』 제20집.

- 김광해(1995). 「언어지식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1996). 「국어 발전의 양상」. 『선칭어문』 제24집.
- 김광해(1997a). 『국어 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광해(1997b). 「21세기를 여는 국어정책」. 『한국인의 미래상』. 서울대학교 21세기문화연구회. 집문당.
- 김민수(1986). 「학교 문법론」. 『서정범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 집문당.
- 김상욱(1994). 「탐구로서의 소설 교육」. 『국어교육』 83·84.
- 김영욱(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칭어문』 제26집.
- 김은성(1997). 「국어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자(1997). 「중학교 언어지식 영역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문 용(1989). 「學校文法論」.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제38집.
- 문순홍(1990). 「고등학교 「문법」 연구」. 한국 교원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민현식(1992). 「문법교육의 목표와 내용:현행 학교 문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79·80.
- 박영목, 한철우, 윤희원 공저(1996). 『국어교육학 원론』. 교학사.
- 박영순(1985). 「고등학교 문법교육의 문제점」. 『사대논집』 10. 고려대 사대.
- 박영순(1986). 「국어 문법교육으로서의 의미론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창간호. 고려대 국어교육과.
- 박정규(1995). 「문법교육을 위한 일고찰」. 『부속학교 교육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박정규(1996). 「고등학교 문법 지도의 실재를 위한 고찰」. 서울시 교육청 지정 연구회 중간보고. 대한국어교육연구회.
- 박희서(1998).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과 목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경아(1999). 「고등학교 「문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연구』

## 26.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백낙천(1999). 「문법교육과 문법교과서」. 『새국어교육』 제5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서덕현(1992). 「학교문법의 경어법 기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서울대 사대 부속여중(1988).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서울대 사대 부속여중.
-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성광수(1987). 「중·고 국어 문법 내용의 적절성과 연계성」. 『사대논집』 12. 고려대.
- 손영애(1986). 「국어과교육의 성격과 내용 체계」. 『선청어문』 14·15합집.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 손영애(1994).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제4집.
- 신현숙(1999).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본 학교문법」. 『선청어문』 제27집.
- 심영택(1995). 「언어지식 내용의 조직 방식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어문연구회(1984). 특집. 「학교 문법과 교과서」. 『어문연구』 42·43. 어문연구회. 『言語學大事典』(1995). 三省堂.
- 위호정(1999).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맞춤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학연구』 제9집. 국어교육학회.
- 유길환. 홍승직. 우기정. 신관식. 오학균. 강승남. 이은숙(1988). 「가치 탐구를 위한 소설 및 희곡 감상력의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 『탐구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 서울대 사대 부속여중.
- 유향숙(1998). 「언어지식영역의 교육적 의의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규(1994). 「문법 수업 설계의 방법」. 『선청어문』 22.
-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 제27집.

- 이문규(1997). 「국어과 '언어' 영역의 성격」. 『국어교육연구』 28.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회.
- 이성영(1995a). 「언어지식 영역 지도의 필요성과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이성영(1995b). 『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성영(1997). 「교육문법을 위한 시론. -대우표현을 중심으로-」. 『초등국어교육 논문집』 12. 강원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용주, 구인환, 김은진, 박갑수, 이상익, 김대행, 윤희원(1993). 「국어교육학 연구와 교육의 구성」. 『사대논총』 46. 서울대 사대.
- 이은희(1994). 「언어 영역의 위상과 내용 선정 방식에 관한 연구」. 『선청어문』 제22집.
- 이은희(1995). 「언어지식 영역 교수 학습 방법 연구」. 『국어교육』 87·88.
- 이은희(1999). 「국어지식 영역 평가의 체계화 방안 연구」. 『선청어문』 제27집.
- 이철수(1984-6). 「학교문법론 1-6 (연재)」. 『어문연구』 42-49.
- 이철수(1985). 「학교 문법의 성격」. 『국어교육』 53·54.
- 이춘근(1998). 「문법교과 수업목표의 설정 및 조직」. 『어문학교육』 20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이충우(1991). 「학교 문법의 교육에 대한 몇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제1집.
- 이충우(1997). 「국어 교육문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7집. 국어교육학회.
- 이희재(1981). 「학교문법과 변형문법의 접목」. 『충북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 임희진(1999). 「국어교과서에 실린 언어지식 체계에 관한 분석」.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시호(2000). 「영어 찬미자들에게 엄중 경고함」. 『신동아』 2000년 4월호.
- 주경희(1997). 「문법교재 구성의 원리」. 『국어교육』 9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영환(1992). 「국어교육에서 문법 지도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제2집. 국어교육학회.



- 최영환(1994). 「언어지식 영역의 목표와 내용」. 『국어학 연구』. 남천 박갑수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 태학사.
- 최영환(1995). 「언어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본 언어지식 영역의 지도 내용」. 『국어교육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최현섭, 최명환, 노명완, 신헌재, 박인기, 김창원, 최영환 공저(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한말연구학회(2000). 「21세기 국어학의 전망과 새로운 모색」. 한말연구학회 제3회 학술대회자료집.
- 홍윤표(1998). 「국어의 역사에 대한 교육」. 『함께 여는 국어 국어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